

중학생의 부모-자녀 유대와 자살사고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가지는 매개효과*

송인한[†] 권세원 정은혜 김리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한국 청소년 자살의 급격한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생의 자살사고에 있어서 부모-자녀 유대관계의 영향력을 조사하며,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역할을 검증하였다. ‘청소년 건강증진 행동’ 연구조사를 위해 전국을 모집단으로 유의할당 추출방법으로 선정된 중학교 2학년 500명을 연구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자기효능감은 자살사고와 부적의 관계를 가졌으며, 자기효능감이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자살사고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부모와의 유대가 자살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자기효능감을 통해 자살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 결과를 통해 부모-자녀 유대관계는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이며, 자기효능감 역시 자살사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통한 가족관계 증진과 자기효능감 향상에 초점을 둔 정책적, 교육적 개입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중학생, 자살, 부모-자녀 유대관계, 자기효능감

* 본 연구는 2010년 질병관리본부 지원의 공중보건 위기대응사업 중 ‘청소년 건강증진행동’ 연구로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송인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정신보건 및 의료복지연구실,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아펜젤러관 202호, Tel : 02-2123-6217, E-mail : isong@yonsei.ac.kr

자살은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다. 2000년대 초반부터 자살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었으며, 특히 전체 남녀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가 10년간 1999년 15.0명에서 2009년 31.4명으로 급증하여 2009년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로 나타났다(통계청, 2010).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률 역시 매년 급증하여 2009년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가 6.5명으로 2008년 대비 40.7% 증가하였다. 자살은 10대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로 보고되어(통계청, 2010) 이에 대한 원인 파악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청소년기의 자살은 발달 과정뿐만 아니라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오현아, 박영례, 최미혜, 2008). 또한 성인의 자살과는 다른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다. 성인의 자살은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한 경우가 많으나(Sheidman, 1987), 청소년은 스트레스나 어려운 상황을 피하는 수단으로서 자살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Glaser, 1981). 청소년의 자살 시도는 실제 자살에 대한 목적보다는 자신의 괴로움이나 고민을 타인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7). 이러한 청소년 자살 실태의 심각성과 청소년기 자살의 특성에 근거할 때, 보다 심도 있는 청소년 자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Calson과 Cantwell(1982)은 자살을 ‘자살생각, 기도, 위협, 시도, 완성’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살생각은 자살시도 및 완성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이며(Calson & Cantwell, 1982; Simon & Murphy, 1985) 자살 이후 자살자를 통한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로 자살생각으로 자살에 대해 예측하고 있다(Cohen, Spirito, & Brown,

1996). 따라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살생각에서 실제 자살로 이어지는 경로를 차단하는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해 살펴보고자 한다(Gould, Greenberg, Velting, & Shaffer, 2003). 개인적 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주요하게 보고되고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박병금, 2007; 박재연, 2009; 장선희, 이미애, 2010). 다수의 연구가 심각한 우울 상태일수록 자살생각이 증가됨을 밝히고 있다(김미애, 2008; 김보영, 2008; 전영주, 이숙현, 2000; 홍영수, 전선영, 2005). 가족적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부모로부터 지지를 받아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이 되는 경우(홍나미, 정영순, 1999; Harris & Molock, 2000; Hollis, 1996)와 신체적 학대 등 부모가 스트레스 제공자로서 청소년의 불안과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이 되는 경우이다(박재연, 2010). 사회·환경적 요인은 주로 학교생활과 관련된 학업스트레스, 학교폭력, 친구관계에 관한 것이다. 학업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문경숙, 2006; 이지현, 이정윤, 2009), 학교폭력에의 노출 정도가 많을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고(박재연, 2010; 최준영, 2007), 또래관계의 어려움 역시 자살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박경, 2005; 홍영수, 2004). 베르테르 효과로도 불리는 유명인에 대한 모방 자살(김순규, 2008)은 최근 청소년의 자살 원인 중 사회적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Gould, 2001; Schmidke & Schaller, 2000; Stack, 2003).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자살에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청소년 자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발달 단계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기는 자아를 형성해가는 시기로 독립심이 증가하여 부모의 관심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 부모와 갈등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황영은, 도연심, 2004).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질은 자녀의 심리사회적인 적응에 영향요인이 된다는 점(최인재, 2005)과 가정 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강력한 영향요인임을 밝힌 연구들(박광배, 신민섭, 1991; 전영주, 이숙현, 2000; Brent, Baugher, Bridge, Chen, & Chiapetta, 1999; 최인재, 2010 재인용)에 따라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있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중요한 선행변인임을 알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가 맺는 관계의 유형은 부모의 사망, 이혼, 재혼, 별거 등의 구조적 유형과 부모와 자녀간의 긍정적 의사소통, 친밀한 관계 형성 등 기능적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최인재, 2010). 부모-자녀의 관계와 청소년의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한 국내외 연구들은 대부분 기능적 유형과 관련된 것이다. 부모와 개방적, 긍정적 의사소통을 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우울 및 자살생각 수준이 낮다는 연구(이지연, 김효창, 현명호, 2005; 조준수, 이경숙, 2005; 하영희, 2004)와 부모와의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 및 자살생각이 감소한다는 연구(윤명숙, 이재경, 2010; 최소정, 배대석, 장문선, 2010)가 이뤄졌다. 또한 따뜻한 가정환경과 친밀한 부모-자녀 관계를 가진 청소년의 경우 자살시도, 자살생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ostik & Overall, 2007; Harris & Molock, 2000). 이와 반대로 부모에 대한 낮은 정서적 유대감(Esposito & Clum, 2002; Pfeffer, 1989)과 의사소통의 부족이 청소년 자

살사고의 원인으로 기술되었다(Wodarski & Harris, 1987).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모-자녀 유대관계’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부모-자녀 유대관계’는 Parker, Tupling과 Brown(1979)이 제시한 개념으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지각하는 따뜻함, 애정, 수용 등을 의미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 최초로 대인관계를 맺는 존재이자 양육의 책임자로 자녀의 성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정원식, 1975). 즉, 자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모의 성격, 태도, 행동 양식에 영향을 받게 되며, 부모-자녀 유대관계는 이후 다양한 대인관계와 외부환경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ohn, Patterson, & Christopoulos, 1991). 그러나 국내에 부모와 자녀 간 유대관계와 자살사고와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거의 없으며,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우울(최외선, 이금숙, 1998)이 유의미한 부적관계를 갖는다는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뤄진 수준이다. 우울이 자살을 예측하는 제1의 변인임을 고려할 때(홍영수, 전선영, 2005; Houston, Hawton, & Shepperd, 2001) 부모-자녀 유대관계가 자살사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연구하고자 한다. 자기효능감은 문제해결에 요구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신념이나 확신을 의미한다(Bandura, 1993). 청소년기는 학업, 진로, 자아형성, 이성문제 등 다양한 요구들과 개인의 능력 사이에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를 극복하는 기제로서 ‘자기효능감’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Asarnow, Carson, & Gutgodhrrie, 1987). 자기효능감의 부족으로 발달과업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 청소년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해지며, 스스로도 무능하다고 여기는데(Bandura, 1997) 이를 통해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심리, 정서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기에 중요한 심리적 자원인 자기효능감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는 부모라고 밝혀졌다(Bandura, 1986). 특히, 부모와의 유대관계 정도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박원모, 천성문, 2008; 이복영, 2007)으로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높은 청소년은 긍정적 피드백을 받아 스스로 무엇인가 해낼 수 있다는 믿음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불안, 우울 등의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Bandura, Hardy, & Howells, 1980; Bandura & Schunk, 1981; Maciejewski, Prigerson, & Mazure, 2000)에 근거하여 자기효능감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쉽게 동기화되고 높은 성취수준(Bandura, 1977)에 이르러 만족감을 느끼지만, 자기효능감이 낮은 개인은 문제를 더 어렵게 지각하고, 부정적인 정서와 자기비하적인 생각으로 인해 우울해지거나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윤운성, 1999; Cervone, Kopp, Shauman, & Scott, 1994). 특히 청소년기에 자기효능감의 저하로 인한 대처능력의 상실은 자살에 이르게 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며(오진경, 1999), 자기효능감의 증대는 자살생각의 보호요인으로써 기능을 한다(김선희, 1999). 심미영과 김교현(2005)의 연구와 Holden, Mendonca와 Serin(1989)의 연구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보호하는 기제로 자기효능감의 중요

성을 주장하였으며, Cole(1989)은 자기효능감 증진프로그램의 효과로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음을 밝혔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대처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울, 절망, 자살사고 등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Cole, 1989).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 우울,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다뤄왔던 것과는 달리 청소년 개인이 가진 자원으로 주변 체계들에 의해 향상이 가능하고, 부모-자녀 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 청소년의 약 50%가 중학생 시기에 처음으로 자살생각을 한다는 조사(한국청소년상담원, 2005)에 근거하여 중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자녀의 관계가 청소년 자살사고에 주요한 변인으로 주목되고 있으나, 기존의 연구는 의사소통, 애착에 관한 연구가 대다수라는 한계점에 근거하여 정서적 유대관계에 초점을 맞춰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정서적 친밀감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의의를 가진다. 또한, 그동안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개념인 '자기효능감'에 주목하여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 부모-자녀 유대관계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이는 청소년의 자살사고가 개인 및 가족의 복합적인 상황에 의해 발생함을 검증하여 중학생의 자살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적 차원으로 개인의 심리적 요인 및 가족적 요인에 대한 개입이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0년 질병관리본부의 지원으로 수행된 공중보건 위기대응사업 중 ‘청소년 건강증진행동’ 연구의 전국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대한민국 전 지역을 모집단으로 한 패널 표집리스트 중 유의할당 추출방법을 사용해 중학교 2학년 500명(남자 200명, 여자 300명)를 선정하여 온라인 써베이를 2010년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진행하였다.

측정도구

자살사고 척도

자살사고는 자살생각과 자살계획을 포함한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Beck, Kovacs와 Weissman(1979)가 청소년용으로 개발한 척도를 신민섭, 방광배, 오경자와 김중술(1990)이 한국 실정에 맞춰 자가보고식 척도로 변형시킨 SSI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3점 척도(0점-2점)인 19문항으로 구성되어 0점부터 38점까지 범위를 가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사고를 많이 하는 것을 나타내며, 총점 3점 이하는 ‘자살에 대한 충동이나 생각이 거의 없는 집단’, 4점 이상 16점 이하는 ‘자살에 대한 생각이 보통인 집단’, 17점 이상은 ‘자살에 대한 생각이 심각한 집단’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866이다.

부모-자녀 유대관계 척도

부모-자녀 유대관계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신뢰감, 친밀감을 포함한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Parker, Tupling과 Brown(1979)이 개

발하고 송지영(1992)이 번역한 부모-자녀 결합 형태 검사(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 총 25문항)를 문경주와 오경자(2002)가 아동, 청소년용으로 수정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PBI는 부모의 자율성과 의존성을 측정하는 과보호 문항(13문항)과 부모의 다정성과 냉정성을 측정하는 자녀 돌봄에 관한 문항(12문항)으로 이뤄져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느끼는 정서적인 유대의 측면에 초점을 맞춰 부모의 자녀 돌봄에 관한 문항(12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유대관계가 긍정적임을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862이다.

자기효능감 척도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에 대한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송윤아(2010)가 국내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근거로 개발하여 타당화 검증을 거친자기효능감 척도를 청소년에게 적합한 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900이다.

통제 변수

통제변수는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가족구조, 가정 경제상황과 선행연구에서 중학생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으로 입증된 친구관계 스트레스와 학업 스트레스로 구성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모상현, 김희진, 2010)에서 실시한 ‘2009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스트레스 문항을 사용하여, 친구관계 스트레스와 학업 스트레스는 5점 리커트 척도인 단문항으로 각 문제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느끼는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 1점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절차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부모-자녀 유대관계, 자기효능감, 자살사고의 실태를 알기 위해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적절성을 검증하였으며,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부모-자녀 유대관계, 자기효능감, 자살사고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MacKinnon, Lockwood, Hoffman, West & Sheets, 2002)를 실시하였다. 통계패키지로는 SPSS 18.0이 사용되었다.

결 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성 200명(40%), 여성 300명(60%)이며 모두 중학교 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살고 있는 지역은 특별시 142명(28.4%), 광역시 135명(27.0%), 그 외 기타 시와 도가 223명(44.6%)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성적이 속하는 집단은 하집단(하위 20%이내)이 23명(4.6%), 중하집단(하위 20-40%)이 83명(16.6%), 중집단(40-60%)이 151명(30.2%), 중상집단(상위 20-40%)이 145명(29.0%), 상집단(상위 20%이내)이 98명(19.6%)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수준은 모른다는 응답이 55명(11.0%)이었으며, 하집단(300만원 미만)이 183명(36.6%), 중집단(300만원-500만원 미만)이 138명(27.6%), 상집단(500만원 이상)이 124명(24.8%)의 비율로 나타났다. 함께 사는 가족에 대한 질문에 아버지와 함께 사는 응답자가 430명(86.0%), 어머니와 함께 사는 응답자가 464명(92.8%), (외)할머니와 함께 사는 응답자는 56명(11.2%), (외)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응답자는 23명(4.6%)로 나타났다. 오빠(형)나 언니(누나)와 함께 사는 응답자는 276명(55.2%), 동생과 함께 사는 응답자는 210명(42.0%), 친인척과 함께 사는 응답자는 24명(4.8%)로 분석되었다. 조사대상자의 보호자 형태를 기준으로 가족구조를 분석해보면 양부모와 함께 지내는 응답자가 402명(80.4%), 한부모와 함께 지내는 응답자가 90명(18.0%), 부모가 없이 조부모와 함께 지내는 응답자가 8명(1.6%)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의 특성

주요 변인인 친구관계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부모-자녀 유대관계, 자기효능감, 자살사고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통제 변수를 먼저 살펴보면 친구관계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3.09점(SD=1.21), 학업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3.67점(SD=1.19)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부모-자녀 유대관계는 5점 만점에 평균 3.44점(SD=0.67)로 나타났으며,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36점(SD=0.69)로 분석되었다. 종속변수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00)

변 수	구 분	빈도(명)	비율(%)
성 별	남성	200	40.0
	여성	300	60.0
지 역	특별시	142	28.4
	광역시	135	27.0
	기타 시·도	223	44.6
주관적 성적	하(20%이내)	23	4.6
	중하(20-40%)	83	16.6
	중(40-60%)	151	30.2
	중상(20-40%)	145	29.0
	상(상위20%이내)	98	19.6
경제 수준	하(300만원 미만)	183	36.6
	중(300만원-500만원 미만)	138	27.6
	상(500만원 이상)	124	24.8
	모름	55	11.0
동거가족 (다중응답 N=1,493)	아버지	430	86.0
	어머니	464	92.8
	(외)할머니	56	11.2
	(외)할아버지	23	4.6
	오빠(형), 언니(누나)	276	55.2
	동생	210	42.0
	친인척	24	4.8
가족구조	기타	10	2.0
	양부모	402	80.4
	한부모	90	18.0
	조부모	8	1.6

인 자살사고는 38점 만점에 평균 10.74점 (SD=6.24)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 상관관계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면 표 3 과 같다. 친구관계 스트레스와 학업 스트레스 (r=0.399, p<0.001), 친구관계 스트레스와 자살

표 2. 주요 변인 특성 (N=500)

변 수	Mean	SD	
통계변수	친구관계 스트레스	3.09	1.21
	학업 스트레스	3.67	1.19
부모-자녀 유대관계	3.44	0.67	
자기효능감	3.36	0.69	
자살 사고	10.74	6.24	

표 3. 주요 변인 상관분석

상관계수	친구관계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부모-자녀 유대관계	자기효능감	자살사고
친구관계 스트레스	1.000				
학업 스트레스	0.399***	1.000			
부모-자녀 유대관계	-0.129**	0.008	1.000		
자기효능감	-0.077	0.053	0.283***	1.000	
자살사고	0.216***	0.127**	-0.363***	-0.211***	1.000

** p<0.01, *** p<0.001

사고($r=0.216, p<0.001$),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자기효능감($r=0.283, p<0.001$),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사고($r=0.127, p<0.01$)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자살사고($r=-0.363, p<0.001$), 자기효능감과 자살사고($r=-0.211, p<0.001$), 친구관계 스트레스와 부모-자녀 유대관계($r=-0.129, p<0.01$)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모든 변수의 상관계수가 0.40이하로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나 모형 검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형 검증 1단계¹⁾: 부모-자녀 유대관계가

1) 2단계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한 매개분석(홍세희,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유대관계를 독립변수,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다중회귀분석모형은 표 4와 같으며, 적합도 검증에서 Durbin-Watson값은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검증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모두 0.4이상, 분산팽창인자(VIF)도 모두 2.5 이하의 수치를 보였다. 또한 상태지수(condition index)가 15이상인 고유근이 1개 존재하나 분산비율(variance proportion)이 모두 .90이하 이므로 다중공선성

2007): 1단계(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 미치는 영향력 검증), 2단계(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

표 4. 부모-자녀 유대관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²⁾

구분	B	S.E	β	t
성별	-.043	.065	-.031	-.666
가족구조1 (기준집단 : 양부모)	.007	.087	.004	.078
가족구조2	.286	.251	.052	1.142
통제변수				
경제수준1 (기준집단 : 중)	-.154	.078	-.111	-1.975*
경제수준2	.066	.081	.043	.808
친구관계 스트레스	-.042	.029	-.075	-1.469
학업 스트레스	.046	.029	.081	1.600
독립변수				
부모-자녀 유대관계	.284	.048	.271	5.898***

Constant = 2.406
 F=6.652***
 R² = .109
 Adj R² = .092

* p<0.05, *** p<0.001

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F=6.652, p<0.001). 또한 본 모형은 10.9%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회귀계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보면 통제변수인 경제수준 1(β =-0.111, p<0.05)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경제수준이 하, 중, 상의 순서로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집단과 하집단의 차이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인 부모-자녀 유대관계(β =0.271, p<0.001)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부모-자녀 유대관계가 높을수록 응답자인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성별(남=1, 여=0), 가족구조 1(한부모=1, 조부모/양부모=0), 가족구조 2(조부모=1, 한부모/양부모=0), 경제수준 1(하=1, 중/상=0), 경제수준 2(상=1, 중/하=0)

모형 검증 2단계: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자기효능감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 자살사고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다중회귀분석모형은 표 5와 같으며, 본 다중회귀분석모형 적합도 검증에서 Durbin-Watson값은 1.897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검증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모두 0.4 이상, 분산팽창인자(VIF)도 모두 2.5 이하의 수치를 보였다. 또한 상태지수(condition index)가 15이상인 고유근이 2개 존재하나 분산비율(variance proportion)이 모두 .90이하 이므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F=11.865, p<0.001). 또한 본 모형은 19.7%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회귀계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

표 5. 부모-자녀 유대관계, 자기효능감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³⁾

구분	B	S.E	β	t
성별	-1.238	.566	-.098	-2.187*
가족구조1 (기준집단)	1.022	.753	.063	1.358
가족구조2 : 양부모)	3.782	2.175	.076	1.739 ⁺
통제변수				
경제수준1 (기준집단)	-.639	.678	-.051	-.943
경제수준2 : 중)	.706	.703	.051	1.004
친구관계 스트레스	.695	.248	.136	2.798**
학업 스트레스	.429	.250	.082	1.715 ⁺
독립변수				
부모-자녀 유대관계	-2.971	.433	-.311	-6.856***
자기효능감	-1.063	.415	-.117	-2.562*

Constant = 21.096
 F=11.865***
 R² = .197
 Adj R² = .180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보면 통제변수인 성별($\beta = -0.098$ 로 $p < 0.05$), 가족구조2($\beta = 0.076$, $p < 0.1$), 친구관계 스트레스($\beta = 0.136$, $p < 0.01$)와 학업스트레스($\beta = 0.082$, $p < 0.1$), 독립변수인 부모-자녀 유대관계($\beta = -0.311$, $p < 0.001$),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beta = -0.117$, $p < 0.05$)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자살사고가 낮게 나타났으며, 친구관계 스트레스와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구조가 양부모, 한부모, 조부모 순으로 자살사고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부모와 조부모의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은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

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부모-자녀 유대관계는 직접적으로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본 연구 모형의 유의함이 확인되어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 (MacKinnon et al., 2002)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아래 표 6과 같으며,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이

3) 성별(남=1, 여=0), 가족구조 1(한부모=1, 조부모/양부모=0), 가족구조 2(조부모=1, 한부모/양부모=0), 경제수준 1(하=1, 중/상=0), 경제수준 2(상=1, 중/하=0)

표 6.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변수 간 경로	B	S.E	Zab
부모-자녀 유대 관계 → 자기효능감	.284	.048	
자기효능감 → 자살사고	-1.063	.415	-2.3506*

*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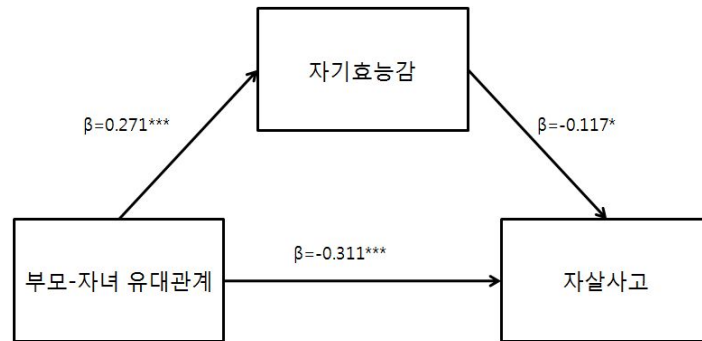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검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p<0.05)지니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논 의

본 연구는 중학생의 부모-자녀 유대관계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중학생의 자살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 결과와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 유대관계가 높을수록 중학생의 자살사고가 낮아지는 관계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는 부모와 긍정적 관계를 맺는

청소년일수록 자살사고가 감소한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윤명숙, 이재경, 2010; 최소정, 배대석, 장문선, 2010; 최외선, 이금숙, 1998). 즉, 중학생은 아동기 이후 점차 친구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이기는 하나 심리적으로 어려울 때 부모와의 유대가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민이 있을 때 부모와 상담을 한다는 청소년이 65.1%로 나타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결과(모상현, 김희진, 2010)와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살사고를 낮추기 위해 가족적 요인인 부모-자녀 유대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관심을 갖고 정책적, 교육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청소년 자살문제에 있어 개입 목표대상을 다만 청소년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상위시스템을 개입의 목

표로 확장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부모-자녀 유대관계가 자기효능감을 부분 매개하여 중학생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자녀 유대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자살사고가 줄어드는 직접효과와 더불어, 부모-자녀 유대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며 자살사고를 낮추는 매개효과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을 경우 부모-자녀 유대관계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부모-자녀 관계가 자녀의 자기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복영(2007)의 연구, 긍정적인 자아가 자살사고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심미영과 김교현(2005), Holden, Mendonca와 Serin(1989)의 연구와 같은 맥락을 가진 결과로서, 청소년이 자살 사고를 함에 있어 부모와의 관계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따라 동일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할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청소년의 자살사고 감소에 있어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실천적 개입을 통해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인 자기효능감을 높임으로써 자살사고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중학생의 자살사고에 있어 성별, 가족구조, 친구관계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요인인 성별, 경제수준, 가족구조와 선행연구에서 자살사고의 주요한 예측변인으로 보고되는 친구관계 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를 통제 변인으로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여성이 남정보다 자살사고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박병금, 2007;

오현아, 박영례, 최미혜, 2008; 조준수, 이경숙, 2005)와 일치하는 결과로 자살사고에 있어 여학생에 대한 차별화된 개입이 요구된다. 가족구조의 경우 양부모, 한부모, 조부모 순으로 함께 사는 부모의 수가 적을수록 자살사고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양부모와 조부모의 차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자살생각과 부모형태를 비교한 홍나미, 정영순(1999), 박병금 (200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부모가 자녀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없는 학생에 대한 관심을 가져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친구관계 스트레스와 자살사고는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여 기존의 연구(박경, 2005; 홍영수, 2004)를 지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친구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심리, 정서 등 다양한 문제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긍정적인 친구 관계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살사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경숙(2006), 이지현과 이정윤(2009)의 연구와 결과와 일치한다. 선행연구의 결과 학업스트레스는 자살사고에 주요한 변인으로 검증되어,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업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변인 간 관계의 검증을 통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학생의 자살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실천적 개입 방안은 다음과 같은 사안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부모와 자녀의 부정적인 유대관계가 자살사고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검증됨에 따라 부모-자녀의 유대관

계를 높일 수 있도록 부모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먼저 개별적인 개입을 살펴보면, 1차적으로 담임교사를 통해 학생들의 가정상황과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파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차적으로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가정의 경우, 담임교사가 상담교사, 학교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집단에 연계하여 부모교육과 상담 등의 개입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담임교사의 1차적인 개입으로 부모-자녀관계의 개선이 어려운 case의 경우, 전문가를 통한 생태체계적인 개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자녀 관계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사정 후, 부모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나 부모 교육, 기타 지원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개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과 가장 많은 시간을 공유하는 담임교사가 각 단계를 거쳐 고위험 학생에 대한 개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기개입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부모상담 및 가족치료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학교차원의 집단적인 개입으로 정기적인 부모교육,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부모-자녀 관계의 증진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돌봄과 보호, 원만한 상호관계가 청소년의 자살생각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리고, 다양한 자녀 양육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부모-자녀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자살사고 감소를 위한 보호막으로서 부모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으로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살사고의 감소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먼저 다양한 발달과업이 요구되는 청소년기의 역동적인 과정 속에서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역시 유동적인 특징을 가져(Bandura, 1986) 교육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위한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기효능감 프로그램의 효과는 Cole (1989)외의 여러 연구들에서 입증되어, 청소년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스스로 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임파워링 함으로써 자살사고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별적인 상담 진행 시,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심리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부정적이거나 부모 없이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학업 또는 또래관계에서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학생일 경우, 자살사고 경향이 더 증가된다는 본 연구 결과가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이들의 자기효능감을 증대함으로써 자살사고를 낮출 수 있도록 선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와 함의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인 가족적 요인 중 전반적인 부모자녀의 관계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부모-자녀의 유대관계에 주목하여 청소년 자살사고와의 관계에 대해 파악하였다. 둘째, 청소년기에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가 행해지지 않은 심리적 요인인 자기효능감의 개념에 초점을 두었다. 셋째,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자살사고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청소년 자살사고에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가족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입증하고, 각각의 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연구 한계점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첫째,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에 있어 부와 모, 개별적인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경우, 부와 모 각각의 영향력이 다르며(이경진, 조성호, 2004; 조준수, 이경숙, 2005), 모와 자녀의 의사소통보다는 부와 자녀의 의사소통이 자살생각에 대한 예측력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이지연 외, 2005). 이에 부와 모 각자와 자녀의 자살생각 간에 미치는 영향력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부와 모의 개별적인 영향력 정도를 확인하고, 그 수준에 따른 차별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기질적 특성이 청소년의 자살사고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청소년기에 독립심이 증대되나 부모가 여전히 큰 영향력을 미친다(Parkes, 1991)는 점에 기반하여 부모의 심리적·기질적 특성과 자살사고와의 관계를 파악한다면, 보다 실제적인 예방책 및 개입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미애 (2008). 우울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보영 (2008).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선혜 (1999).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순규 (2008).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보호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9, 66-93.
모상현, 김희진 (2010). 2009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생존권·보호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경숙 (2006).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 친구에 대한 애착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27(5), 1-15.
문경주, 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1(1), 29-43.
박광배, 신민섭 (1991). 고등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0(1), 298-314.
박경 (2005). 청소년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자살사고간의 관계에서 문제해결과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2), 131-147.
박원모, 천성문 (2008).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부모애착과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친구관계 간의 모형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1), 41-59.
박병금 (2007). 청소년의 자살생각 관련요인: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6(3), 1-18.
박재연 (2009).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구조적 관계 검증. 청소년학연구, 16(10), 249-272.
박재연 (2010).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간 차이. 한국가족복지학, 28(4), 61-92.
- 박재연 (2010). 학교폭력이 청소년 우울 및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 사회복지연구, 41(1), 345-375.
- 송윤아 (2010).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송지영 (1992).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 형태 검사(Parental Bonding Instrument):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대한신경정신의학회, 31(5), 979-992.
-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1990). 고등학생의 자살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인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임상, 9(1), 1-19.
- 심미영, 김교현 (2005). 한국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성과 발달시기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3), 313-325.
- 오진경 (1999). 장애들의 종교 지향성 및 자살생각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현아, 박영례, 최미혜 (2008).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우울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지, 14(1), 35-43.
- 윤운성 (1999). 부모의 기대가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13(4), 247-258.
- 윤명숙, 이재경 (2010). 부모애착이 초기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분석. 경성통일논총, 26(2), 69-92.
- 이복영 (2007). 부모-자녀간의 애착이 중학생의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경진, 조성호 (2004). 청소년 자살 고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치료, 16(4), 667-685.
- 이지연, 김효창, 현명호 (2005). 스트레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청소년 자살생각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4), 375-394
- 이지현, 이정운 (2009).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 부모 및 또래와의 관계와 인지왜곡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0(2), 1113-1126.
- 장선희, 이미애 (2010). 청소년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 연구: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8), 27-55.
- 전영주, 이숙현 (2000). 청소년의 자살구상과 관련 변인분석. 청소년학연구, 7(1), 221-246.
- 정원식 (1975). 인간과 교육. 서울:배영사.
- 조준수, 이경숙 (2005).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심리적 안녕이 중학생들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교육종합연구소, 3(2), 153-165.
- 최소정, 배대석, 장문선 (2010). 자살생각과 관련된 부모와의 애착, 역기능적 신념 및 우울간의 관계분석. 상담학연구, 11(2), 571-582.
- 최인재 (2005).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문화적 특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1059-1076.
- 최인재 (2010). 청소년기 자녀의 자살생각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자아존중감 및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9), 105-130.
- 최외선, 이금숙 (1998). 대학생의 부모-자녀 유

- 대관계와 우울에 관한 연구. 영남대자원문제연구소, 17(1), 135-147.
- 최준영 (2007). 청소년의 집단따돌림과 자살관련 태도. 사회연구 통권, 14, 223-238.
- 통계청 (2010). 사망원인 통계보도자료. 통계청.
- 하영희 (2004).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우울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2(2), 42-52.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청소년의 자살 예방과 상담.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7). 청소년자살예방체제 구축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홍나미, 정영순 (1999). 청소년 자살생각 영향 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37, 449-473.
- 홍영수 (2004).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대한 생활스트레스 및 자기존중감의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5(2), 153-182.
- 홍영수, 전선영 (2005).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9(4), 125-149.
- 황영은, 도현심 (2004).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모-자녀간 갈등과 남녀청소년의 개체화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2), 133.
- Asarnow, J., Carson, G., & Gutgodhrie, D. (1987). Coping strategies, self perceptions, hopelessness, and perceived family environments in depressed and suicidal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ical*, 55, 361-366.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 Hardy, A. B., & Howells, G. N. (1980). Test of the generality of self-efficacy theory. *Cognitive Theory and Research*, 4, 39-66.
- Bandura, A., & Schunk, D. H. (1981).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568-598.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on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ndura, A. (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2), 117-148.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Beck, A., Kovacs, T. M., &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2), 343-352.
- Bostik, K. E., & Everall, R. D. (2007). Healing from suicide: Adolescent perception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ing*, 35, 79 - 96.
- Calson, G. A., & Cantwell, D. P. (1982). Suicidal behavior an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1(4), 361- 368.
- Cervone, D., Kopp, D. A., Shauman, L., & Scott, W. D. (1994). Mood, self-efficacy and performance standards: Lower moods induced higher standards for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 and Social Psychology*, 67(3), 499-512.
- Cohen, Y., Spirito, A., & Brown, L. K. (1996). Suicide and suicidal behavior. In R. J. Diclemente, W. B. Hansen & L. E. Ponton

- (eds.), *Handbook of Adolescent Risk Behavior* (pp. 193-224). New York: Plenum Press.
- Cohn, D. A., Patterson, C. J., & Christopoulos, C. (1991). The family and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315-346.
- Cole, D. A. (1989). Psychopathology of adolescent suicide: Hopeless, coping beliefs, an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8, 248-255.
- Esposito, C. L. & Clum, G. A. (2002). Social support and problem-solving as moder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abuse and suicidality: Applications to a delinquent population.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5, 137-146.
- Glaser, K. (1981). Psychopathology patterns in depressed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35(3), 368-382.
- Gould, M. S. (2001). Suicide and the media. In H. Hendin & J. J. Mann (Ed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pp.200-224). New York: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 Gould, M. S., Greenberg, T., Velting, D. M., & Shaffer, D. (2003). Youth suicide risk and preventive interventions: A review of the Past 10 year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2(4), 386-405.
- Harris, T. L., & Molock, S. D. (2000). Cultural orientation, family cohesion, and family support in suicide ideation and depression among African college stud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0, 341-353.
- Hollis, C. (1996). Depression, family environment, and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5, 662-630.
- Holden, R. R., Mendonca, J. D., & Serin, R. C. (1989). Suicide, hopelessness, and social desirability: A test of an interaction model.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500-504.
- Houston, K., Hawton, K., & Shepperd, R. (2001). Suicide in young people aged 15-24: A psychological autopsy stud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63, 159-170.
- Maciejewski, P. K., Prigerson, H. G., & Mazure, C. M. (2000). Self-efficacy as a mediator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depressive symptoms: Differences based on history of prior depressio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76, 373-378.
- Mackinnon, D. P., Lockwood, C. M., Hoffman, J. M., West, S. G., & Sheets, V. (2002). A comparison of methods to test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ed effect. *Psychological Methods*, 7(1), 83-104.
- Parker, G., Tupling, H., & Brown, L. B. (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2(1), 1-10.
- Parkes, C. M. (1991). Attachment, bonding and psychiatric problems after bereavement in adult life. In C. M Parkes, J. Stevenson Hinde & P. Marris (eds.), *Attachment Across the Life Cycle* (pp. 268-292). London: Routledge.
- Pfeffer, C. R. (1989). Life stress and family risk factors for youth fatal and nonfatal suicidal behavior. In C. R. Pfeffer (Ed.), *Suicide Among Youth: Perspectives on Risk and Prevention* (pp. 143-164). Washington: American Psychiatric

- Association.
- Schmidtko, A. & Schaller, S. (2000). The role of mass media in suicide prevention. In K. Hawton & K. van Heeringen (eds.), *The International Handbook of Suicide and Attempted Suicide* (pp. 675-698). New York: Wiley.
- Sheidman, T. (1987). Adolescents suicid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8, 545-565.
- Simon, R. L. & Murphy, P. I. (1985). See differences in the causes of adolescent suicide ide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t*, 14, 423-434.
- Stack, S. (2003). Media coverage as a risk factor in suicide.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57, 238-240.
- Wodarski, J. S., & Harris, P. (1987). Adolescent suicide: A review of influences and the means for prevention. *Social Work*, 32(6), 477-484.
- 원 고 접 수 일 : 2011. 06. 10.
수정원고접수일 : 2011. 08. 01.
최종게재결정일 : 2011. 08. 16.

Self-Efficacy as a Mediat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Bonding and Suicidal Ideat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In Han Song

Se Won Kwon

Eun Hae Chung

Li Ja Kim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The incidence of suicide among adolescents has rapidly increased, causing a serious social problem currently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arent-child bonding on suicidal ideat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bonding and suicidal ideation. For the Adolescent Health Promotion Study, 500 middle school students were selected national-wide by using quota sampling from regional areas in Korea.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Sobel test were used to verify the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The results show that suicidal ideation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levels of parent-child bonding and self-efficacy, and that self-efficacy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bonding and suicidal ideation. That is, parental bonding directly affected suicidal ideation, and it increased suicidal ideation through self-efficacy as a mediator. These findings imply that parent-child relationship of adolescents is a core factor which impact the adolescents' suicide, and that self-efficacy plays an important role in suicidal ideation. Policy, education, and intervention efforts should be targeted at both improving family relationships and increasing self-efficacy among adolescents in planning suicide prevention programs.

Key words : middle school students, suicidal ideation, parent-child bonding, self-efficacy